

사설

신도시 포교의 지 있는가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시설이 모두 780개로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교회가 91.6%인 715개, 사찰이 5.1%인 40개, 성당이 1.9%인 15개 등의 순이라고 한다. 양적 팽창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현격한 숫자 차이는 불교계의 박약한 포교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도시는 그 엄청난 주민의 숫자만 보더라도 어느 종교에서나 간과할 수 없는 포교대상지로 꼽힌다. 특히 신도시는 기존 사찰이 적고 타종교의 활동이 유난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세가 열세에 놓이기 십상인 곳이다. 따라서 신도시 포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백반을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당면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포교에 원력을 세운 많은 스님이나 법사들이 신도시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그곳의 많은 인구와 더불어 도심지보다 땅값이 싸고 임대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포교 환경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활동이 유난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세가 열세에 놓이기 십상인 곳이다. 따라서 신도시 포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백반을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당면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포교에 원력을 세운 많은 스님이나 법사들이 신도시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그곳의 많은 인구와 더불어 도심지보다 땅값이 싸고 임대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포교 환경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활동이 유난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세가 열세에 놓이기 십상인 곳이다. 따라서 신도시 포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백반을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당면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들에겐 깊은 신심과 끈기, 자급력과 포교방법의 특성화 등이 요구된다. 활동 범위가 불공이나 제사, 설법은 물론 주민포교,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누구나 피곤한 심신을 이끌고 찾아와 의지하고 싶은 휴식처 기능의 이상적인 생활 모습을 갖추는 일까지 무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포교담당자들은 그 원력과 역량이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활동의 범위나 시간에 있어서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에도 높은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더구나 종단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런 초인적인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기 일쑤다. 실제로 임대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건강이 악화돼 어떻게 마련한 포교원을 쓸쓸히 떠나가는 스님이나 법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는 신도시 포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어떤 뾰족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이 앞장서 구체적인 신도시 포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어려우면 우선 행정편의 제공이나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신도시 포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묘향산 생각이 난다.
남북정상회담은 두 달도 못남은 코 앞에 와 있다. 그 회담의 성과를 남북 양쪽이 다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어떤 남북관계 회담과도 비교할 수 없게 진지할 것이 틀림없다.

분단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그 역사적인 의미는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막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의미의 못지 않게 그 성과 역시 역사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분단 반세기 이상의 고통은 그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분단현상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분단극복의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끊긴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금강산 가는 철도들이 복구되면 남북의 물자가 오고 가고 차츰 사람도 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점차 조속이 하나 되는 통일과정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경의선을 타고 평북 안주역에서 내려 청천강을 따라가면 거기에 묘향산이 있다. 나는 2년전 북한방문 15일간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런 중에도 묘향산 일정이 잡혀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다. 내 전생이래 처음으로 찾아간 마음의 고향이었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본지 논설교문

남과 북의 자매결연

서산의 안목은 깊은 것이었다. 그가 이곳에서 80세를 일기로 눈을 감기 전 그가 입었던 대가사 등 의발을 멀리 남쪽 해남 대둔사(대흥사)로 보내어 보관케 한 유언이 있었다.

저 남쪽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깊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제자 편양 등은 스승의 뜻대로 의발을 대둔사로 보내어 지금까지 대둔사에 소장되어 왔다. 그 가사는 서산의 종모를 짐작케 한다. 품이 크고 키도 장대했던가 보다.

물론 그가 젊은 날의 편력을 통해 지리산에도 살았고 해남평도 한번쯤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해남 대둔사와 별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이 연달아 일어나는 국토의 침략과 재앙 등의 수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서 자신의 의발이 거기에 남게되기를 바란 것이기도 모른다.

내가 눈여겨 보는 것은 그가 생애의 끝에 이르러 생전 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곳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묘향산 보현사는 한국불교가 대체로 남쪽에 치우친 것을 어느 만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묘향산은 김주석 부자의 기념관이 있어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곳이다.

하지만 보현사는 고대 사찰이 아니다. 고려 광종 시대 황해도 용흥의 두 젊은이가 이 산중에 들어와 그들의 고행도량을 연 것이다. 그들은 화엄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절이 국할 왕찰, 그리고 왕실의 원찰인 것과 달리 절을 세운 사람이 나라의 권세와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서산의 안목은 깊은 것이었다. 그가 이곳에서 80세를 일기로 눈을 감기 전 그가 입었던 대가사 등 의발을 멀리 남쪽 해남 대둔사(대흥사)로 보내어 보관케 한 유언이 있었다.

저 남쪽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깊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제자 편양 등은 스승의 뜻대로 의발을 대둔사로 보내어 지금까지 대둔사에 소장되어 왔다. 그 가사는 서산의 종모를 짐작케 한다. 품이 크고 키도 장대했던가 보다.

물론 그가 젊은 날의 편력을 통해 지리산에도 살았고 해남평도 한번쯤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해남 대둔사와 별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이 연달아 일어나는 국토의 침략과 재앙 등의 수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서 자신의 의발이 거기에 남게되기를 바란 것이기도 모른다.

내가 눈여겨 보는 것은 그가 생애의 끝에 이르러 생전 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곳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묘향산 보현사는 한국불교가 대체로 남쪽에 치우친 것을 어느 만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묘향산은 김주석 부자의 기념관이 있어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곳이다.

하지만 보현사는 고대 사찰이 아니다. 고려 광종 시대 황해도 용흥의 두 젊은이가 이 산중에 들어와 그들의 고행도량을 연 것이다. 그들은 화엄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절이 국할 왕찰, 그리고 왕실의 원찰인 것과 달리 절을 세운 사람이 나라의 권세와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확신한다. 너무 많이 최악의 분단 체험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은 더 이상의 적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서로 동질성을 더해야 하고 공생 상생의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이제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 6.25 50주년을 맞는 평화의 현재를 진행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 비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서산이 보현사와 대둔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내가 최형민 주지와 시숙에서 주고 받은 것처럼 어느 기구나 단체, 어느 개인이 남과 북 사이의 형제 자매로서

'자비의 손길' 지속적으로

늘 한해 한해 부처님 오신날이 지날 때마다 부처님 오신날이 일회성의 경축 행사로 끝나버리고, 진정 부처님이 오심으로 달라진 세계의 모습을 우리 불자들이 드러내 보이지 못하였다는 미진함이 남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가정들과 사찰들을 자매로 맺어주는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자들의 갈증과 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번 조계종의 사업계획은 이러한 결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단위 사찰들이 지속적으로 자비의 광명을 퍼 나가는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불교인들의 불사가 자기네들끼리의 자위행위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광명을 전하는 참다운 불사로 세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단 차원의 큰 행사보다도 이렇게 종단의 기본조직인 사찰을 통해 새로운 불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참체에 빠진 조계종단의 기풍을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도, 또 일반 신도들의 불사에 대한 의

식을 바꾸어 나간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비록 종단 차원에서 기획되고 결정된 일이라 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불교를 진작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부처님 오신날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 보이시려면, 그 열어 보인 세계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그러한 세계의 완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의 외연을 넓혀, 모든 생명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어려운 이웃, 그늘에 있는 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함으로써 이다.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되며, 그러한 이웃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불자들의 타성 속에 부처님은 오실 수가 없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불자들의 자비 열원을 키워나가고, 그러한 자비행의 광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날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불국정토를 이루어나가는 여정이다.

남북 물자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분단 반세기의 고통
이젠 끝나야 한다

《유가구감》 등이 세상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유명하다.

“금강은 빼어나되 장하지 않고 지리산은 장하되 빼어나지 않으며 구월은 빼어나지도 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달다. 그런데 묘향은 빼어나고 장함을 함께 구족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솔직한 명산론을 인정하는 대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묘향산의 하루로 그 산의 절묘한 바를 얼마쯤 체감했다. 과연 그 산은 빼어나기와 장하기를 겸하고 있었다.

입진 경우 왜한 전후 이곳을 임종의 곳으로 정한

더이상 적 아니다
상호존중 원칙삼아
서로 동질성 확인
상생의 공간 열자


의 결연, 우정의 결연을 맺는 일이 남과 북의 평화와 인간적 사회적 교감에서 아주 큰 역할을 대할 지 모른다.

이는 남과 북의 경제적 교역과 함께 두 지역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요소가 된다.

지금 북한에는 60여 군데에 사찰이 있다. 그곳과 남한의 사찰들이 서로 결연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민족사회를 위한 종교적 일치운동이기도 하다.

서로 피가 도는 결연이달로 서로 함께이고 서로 하나인 생명체를 만드는 일이다.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시와 칼럼

보덕현오선사 저
마음의 창

마음의 창

▲ 1권 7,2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 탈 - 값 7,200원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본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금주: 최종웅
금액: 80,000원
문의전화: (02)913-0133~4